AUTUMN 2019

하늘꿈학교 가을소식지

하늘꿈학교 대한민국 최초의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2003년 개교)

애통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꿈학교의 소중한 동역자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복잡하고 예민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던 신앙의 모습들이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고 한국교회 내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근심으로 조바심이 나던 때에 1973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래함 전도 집회"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회에 334만 명이 운집했고, 100만 명의 결신자를 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중 한 명 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제안의 확신은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국가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고 예민한 국제정세의 핵심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통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책임감을 더욱 느낍니다. 많은 말보다 동역자 여러분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동역자님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꿈 학교장 임 향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22~23

사단법인 좋은씨앗
하늘꿈학교
HEAVENLY DREAM SCHOOL

° 2003년 개교한 국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1호.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 좋은씨앗이 운영하며 서울, 경기 지역에 9개의 그룹홈형 기숙사 운영
° <수상> 통일부장관상(2001), 국무총리상(2002), 한국감리교선교대상(2002), 서울시장상(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2009), 세계여성자원봉사단체 소롭티미스트 루비상(2012), 자랑스런 정신동문상(2017), 경기도교육청 연구학교 우수 평가 및 교육감 표창(2019)
° <외부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0), 미국 국무부 '탈북청소년 리더십 프로젝트' 선정(2011), 통일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매뉴얼' 개발 공동연구(201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운영 외부평가단 평가 우수학교(2012),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3),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사업 평가 우수 등급 획득(2014), 공동모금회 북한이탈학생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5),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북한이탈학생 특성화교육 지원 사업 최우수 등급 획득(2016), 교육부 지정 통일준비(시범)학교(2016), 경기도 교육청『연구학교』선정(2017~2018)
° <하늘꿈학교 사명선언문> 하늘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자유민주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이루는 일꾼으로 양성합니다.
° <핵심가치> Integrity(온전함), Frontier Spirit(개척 정신), Incarnation(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Hope in Christ(소망의 인내), Next Generation(다음 세대)

하늘꿈 제자훈련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모여 제자훈련을 받은 하늘꿈학교 4명의 학생. 누구의 강요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인성부 김은희 목사님과 함께 1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 중 홍영미 학생이 대표로 제자훈련으로 받은 은혜를 전교생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중국 땅에서 자신과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영미 학생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영미의 꿈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늘꿈학교 고2 홍영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올해 1월 하늘꿈학교 리더십 캠프(DTS)에 참가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처음엔 많이 당황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돼라”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주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지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죄로 둘러싸인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자훈련 소주제 단원에서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정성껏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며 스스로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옹기장이 찬양을 들으며 한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를 공부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인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나 홍영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전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부터 저는 다니지 않았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힘겹게 구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짬짬이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도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길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순종의 마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갖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때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그 중국 땅에 저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EUC 통일 세미나

12번째로 열린 2019 영어통일캠프(EUC)에는 여느 해처럼 남북한 청소년들과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통일세미나 강사가 되어 남한 청소년들과 해외에서 온 외국인 봉사자들에게 북한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장난치고, 밥도 먹고, 잠도 잤던 친구가 북한을 이야기 하니 한국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열심히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동안 전혀 몰랐던 북한에 대해 알고 나니 모두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더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10년 이상 허락하시고 흩어져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남한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통일을 준비시키시고자 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작은 통일을 경험했습니다.

통일 세미나 Day 1

강의:동방의 예루살렘, 북한 (원정하 목사님)

북한 땅이 과거에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며, 그 땅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꿈학교 학생들은 북한의 현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잘 모릅니다. 통일세미나 준비 모임에서 하늘꿈학교 학생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북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학생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구원을 감히 말할 수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이들의 분노를 깊이 헤아려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기만 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기본 진리가 북한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첫째 날의 강의는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북한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자, 한국 학생들에게는 북한에도 우리처럼 교회가 있었던 역사를 알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통일 세미나 Day 2

소그룹강의:우상 숭배의 땅, 북한 (하늘꿈학교 학생)

북한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 북한에서 자유 없이 살고 있던 하늘꿈학교 학생들이기에 20명씩 한 팀으로 모여 그 안에 있는 하늘꿈학교 학생에게 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북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통일 시대에 북한을 회복시킬 리더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고향 땅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왔다며 미안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고향의 어두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도 있었으나 그런 북한의 실상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한국 친구들과 외국인 선생님들을 보며 북한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더 알려야겠다고 학생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하늘꿈학교 학생들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로서 당당하게 통일을 준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탈북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중국 출생 학생들에게도 통일세미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출생했다면, 대부분 탈북 이후 중국 공안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원치 않는 가정을 꾸리는 차선책을 택한 분들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 갑니다. 어머니들조차 자녀에게 탈북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출생 학생들은 북한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통일세미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을 알고 어머니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 출생 학생은 “통일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일된다면 저와 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한 학생들의 마음도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하늘꿈학교 학생의 발표를 절반 이상 듣고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발표자(하늘꿈학교 학생)의 마음은 미어졌지만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에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탕을 맛보고 북한 학교의 계급장을 달아 보며 즐거워하던 남한 학생들도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남조선 간첩 취급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한 탈북학생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발표자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유를 갈망하는 발표자 앞에서 누구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일 세미나 Day 3

퍼포먼스: Again 1907 (퍼즐 맞추기)

북한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적힌 퍼즐 300개가 모이자, 북한이 푸른 초장으로 덮이고 교회가 세워진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퍼즐 조각에 기도 제목을 쓰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남한 학생들과 외국에서 온 스텝들이 북한에 교회가 세워진 퍼즐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린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소망하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탈북민에게 남한 사람보다 많이 주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의 기회에요. 후배님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부하세요.

하늘꿈학교 8회 졸업생
한국외국어대 중어중문학부 김연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하늘꿈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한국외국어대 중어중문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주라고 합니다. 2010년에 한국에 왔는데, 하나원에서 알게 된 지인의 강력한 추천을 받고 하늘꿈학교에 고민 없이 입학했습니다.

탈북을 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국에 돈을 벌러 갔었고 한국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아직 가족은 북한에서 살고 있고 가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보내드립니다. 집에 돈을 보내드리려고 휴학을 자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대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올해 꼭 졸업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정치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몰랐고 남한 드라마를 통해서 북한에서 가르쳐주는 남한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남한이 못 산다고 나와 있는데, 드라마를 보니 남한이 잘 살고, 사람들이 옷도 예쁘게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는?

'천국의 계단'이요. 그 드라마를 볼 때는 권상우가 너무 멋있었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모르겠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먼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북한보다 훨씬 발달한 것들이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전 내면의 고민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두렵고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11 겨울 방학식

2012 하늘꿈 리더십캠프(DTS)

하늘꿈학교의 첫인상 어땠나요?

북한에서 공부를 다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상상했던 학교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참 좋은 시설이지만, 제가 하늘꿈학교를 다닐 때는 상가 건물 2층에 아주 좁았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그래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영어, 수학 수업이 비교적 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왔다는 사실에 선생님들도 놀라셨죠. 의외로 한국어가 저는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안 쓰는 외래어가 낯설고, 표현이 다른 것도 많고,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해주신 고전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중어중문학부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생활은 어때요?

아버지의 꿈대로 간호사가 되려고 했다가 입시에서 고배를 마시고 어머니의 꿈이었던 한자 교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중어중문학부에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처음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오래 살았던 친구들도 있으니 저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어요. 교수님께서 강의 때 사용하시는 용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처음에는 강의를 다 녹음해서 복습했는데 1시간 45분짜리 강의를 복습하면 6시간이 걸렸고 이런 강의가 하루에 3개씩 되니까 정말 잠잘 시간도 없었어요. 이렇게 1년을 공부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렇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좌절이 많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약이 되었고, 한국어 어휘 공부를 위해 책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어 사용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흔히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고 언어와 문화가 같아서 외국인보다 한국에 적응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단 70년이 낳은 이질감은 생각보다 크고 적응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누구나 그렇듯 저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공부 잘하는 한국 친구들 보면서 빨리 따라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 왔다고 움츠러들 시간이 없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20년을 한국에서 산 친구들과 나는 똑같을 수 없다고 스스로 위로 해가며 나를 더욱 다지는 기회로 삼았어요.

2011 독서반

하나님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처음 하나님 만난 계기가 궁금해요.

하나님 믿죠. 북한에서 남한 오면 처음에는 다들 좋아하는데 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그 당시 함께 하늘꿈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기숙사도 함께 살았어요. 그 친구와 기숙사에서 함께 기도하면 두려웠던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영어공부가 힘들 때면 기도했어요.

해외에서도 살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미국에서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미국 국무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몇 년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새벽기도까지 했었는데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하는 의심도 들고, 참 힘들었어요. 몇 번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교환 학생으로 문화심리학을 배우고 왔습니다.

'문화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어떤 과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탈북민으로서 한국에서 살면서 차별 아닌 차별을 많이 경험했어요. 수업을 잘 듣고 있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아신 교수님께서 저를 막 비판 하시기도 하고, 다른 시선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궁금함이 생겼죠. 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거나 생각할까? 이 사이에 어떠한 문화적 요소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할까? 그러면서 사회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고 세부적으로 문화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환학생 시절

미국 교환학생 시절

한국에서도 처음에 대학교 수업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괜찮았나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영어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안되면 눈치로 알아듣고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요. 가기 전에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낙관주의자는 아니어서 좋은 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점도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한국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여유 있고 조용하더라고요. 문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도 했는데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눈만 마주쳐도 인사하는 문화가 적응이 안 돼서 눈도 못 들고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군요. 그리고 '땅이 참 넓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사회심리학 분야로 대학원에 갈 생각입니다. 졸업하면 통일부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청소년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데 통일부 내에 분야가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최종적으로는 문화 심리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석•박 통합으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은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고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나무가 꿋꿋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원뿌리 주변에 곁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조경래 작가님 소설에서 읽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 곁뿌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들한테는 공부는 내 안에 무엇인가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큰 자산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든 배워두는 것이 자산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북한 친구들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돈은 있다가도 또 금방 없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영원한 것에 더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책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스스로 자발적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자예요. 한국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세대에서 이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소수자로 살 수는 없어요. 북한 친구 중에 학교 안 가고 일찍 돈 벌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그럼 지금 잘 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공부한 친구들이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더라고요. 정부에서 탈북자들에게 남한 사람들보다 유일하게 많이 주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의 기회에요. 저희는 수능도 보지 않고 대학에 가고 등록금도 내지 않잖아요. 남한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후배님들 공부하세요. 부탁입니다.

김연주 졸업생은 한국에서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자신이 성취할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 말고 영원히 자신에게 남는 것에 집중하라고 당부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김연주 졸업생을 보면서 느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심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해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 닮기’, ‘예수 살기’ 산성교회

산성교회 이웃사랑 장학금을 받는 하늘꿈학교 졸업생들

산성교회와 목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산성교회는 93년 양재동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를 꿈꾸며 개척했고, 94년에 일산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예수 닮기’, ‘예수 살기’라는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깊은 영성’, ‘단순한 삶’,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성교회를 개척부터 섬기는 담임목사 윤원영입니다.

하늘꿈학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늘꿈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임향자 목사님과 부군 되시는 정창우 권사님께서 산성교회를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등록 안 하시고 예배만 드리셨는데 몇 년 후에 등록하시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임향자 목사님께서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았지요. 그렇게 하늘꿈학교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첫인상 어떠셨나요?

2012년 하늘꿈 후원감사의 밤에 초대 받아 갔을 때 학생들을 처음 봤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 표정이 참 밝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애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산성교회와 하늘꿈학교가 함께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북한 학생들의 강한 승부욕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그냥 즐겁게 경기를 하는데, 하늘꿈학교 학생들은 이기려고 목숨 걸고 하는 모습에 다 큰 어른들이 나중에는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수 나오라고 하면 서로 하겠다며 나서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사실 여느 남한 청소년들과 비슷하기도 하고 도시락도 같이 먹으면서 매우 친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특별히 기억에 나는 일이 있습니다. 후원감사의 밤 때 오신 손님들에게 비빔밥 도시락 나누어주었는데, 도시락은 하늘꿈학교 졸업생이 직접 손수 만든 도시락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늘꿈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 와서 팔 걷고 돕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맛도 일품이어서 제가 그 도시락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3년 하늘꿈학교와 함께 산성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2019년 영어통일캠프(EUC)

하늘꿈학교에서 여름마다 열리는 영어통일캠프(EUC)에 산성교회 학생들이 매년 참가합니다.

처음 EUC를 소개 받을 때 교회 수련회로 가기에는 참가비가 비싸서 망설였는데 그 참가비 안에는 북한 학생들의 참가비도 포함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캠프에 참가하면 북한 학생들을 자동으로 돕는 것이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반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캠프에 갔습니다. 지금은 교회 중•고등부 예산에 EUC 캠프 예산을 따고 세우고 학생들을 독려해서 보내고 있지요.

목사님 보시기에 EUC 캠프에서 북한 학생들을 만나고 온 산성교회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캠프에 가기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막연하게 두렵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녀온 학생들이 '북한도 우리랑 똑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 캠프를 계속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EUC에 보내면 유익한 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데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중요한데 원어민과 직접 영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캠프에 모인 외국인과 한국인 봉사자 선생님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봉사에 대한 마음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캠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성교회 이웃사랑 장학금 모임에서 하늘꿈학교 졸업생과 산성교회 성도님들

산성교회 이웃사랑 장학금을 하늘꿈학교 졸업생 13명이 받고 있는데, 장학금의 취지와 교회의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향자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니 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아서 교회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하늘꿈학교 학생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꿈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룹홈에서 지내며 졸업할 때까지 학교의 보살핌을 받지만 졸업하면 그룹홈에도 있을 수 없고 힘든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은 지원해 주시만 이 아이들이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데 남한 친구들보다 실력도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면 대학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산성교회는 앞서 설명했듯이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26개 속회가 있는데 2속회가 한 조가 되어 1명의 북한 아이들을 품어보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직접 만나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필요한 조언도 해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려가 컸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해하면 어쩌나, 만났는데 대화가 한마디도 없으면 어쩌나. 그러나 이런 저의 우려와는 달리 너무 즐겁게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형태의 협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느 한쪽만 살아남는 통일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통일을 기대합니다.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독 출신 중 서독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통일되었을 때 동독으로 건너가 동독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꿈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꿈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죽음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한국에 왔는데, 한국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탈북보다 더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견뎌주었으면 좋겠고, 그 여정 가운데 학생들은 하늘꿈학교와 선생님들을 만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큰 복입니다. 하늘꿈학교 학생들도 귀하지만 하늘꿈학교를 지키고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참 귀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학교가 유지되고 학생들이 변화된다고 봅니다. 그런 선생님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하늘꿈학교 선생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산성교회도 곁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늘꿈학교 중창팀이 산성교회에 특송을 하러 갔을 때 성도님들께서 매우 환대하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한 명씩 꼭 안아주셨습니다. 교회의 따뜻함을 몸으로 느낀 하늘꿈학교 아이들이 그 후 표정이 밝아지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산성교회는 하늘꿈학교 학생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뿌리 깊은 세뇌교육을 받은 북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든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신 산성교회와 윤원영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Nehemiah Team

미국 남침례교단에 소속된 기독 대학 청년들이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전 세계로 선교활동을 떠나는데 하늘꿈학교를 찾아온 느헤미야팀은 특별히 북한과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입니다. 올해 온 청년들이 모두 자매여서 하늘꿈학교 남학생들이 살짝 아쉬워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하늘꿈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그 기회를 남학생들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월 10일 하늘꿈학교에서의 첫날
하늘꿈학교 전 교생 앞에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Hi ~~ My name is Sarah."
"Nice to meet you."

그리고 기숙사에서 하늘꿈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It's so nice to share a room with Minjeong."
"저도요. ^^"

영어 회화 수업을 돕기도 하고

체육 수업과 텃밭 수업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담당 선생님을 도와
학교 데크에 오일 스테인 작업도 했으며

영어 말하기 대회 때 학생들의
심사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월요 채플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귀한
간증 나눔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
는지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EUC도 함께 했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EUC를 마지막으로 7월 28일 느헤미야팀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돌아가서 하늘꿈학교와 북한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해준 느헤미야팀 모두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느헤미야팀 리더
Aaron Jones

하늘꿈학교에서 느헤미야팀을 이끈 지난여름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팀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외국인 팀을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저를 부르셨고, 저는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하늘꿈학교와 2012년도부터 함께 일해왔고 학교의 비전과 학생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한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학생 수가 많아 모든 학생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팀의 방문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 완벽했습니다. 몇 달간의 기도와 준비 끝에 여섯 명의 자매들이 하늘꿈학교 학생들과 여름을 보내기 위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여름 방학을 포기한 이 대학생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느헤미야팀은 도착과 동시에 학생들의 이름과 관심사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해나갔고, 특히 하늘꿈학교의 여학생들과 매우 친해졌습니다. 매일 느헤미야팀은 각 그룹홈의 학생들과 함께 등교해서, 텃밭 일을 돕고, 영어를 가르치고, 청소와 시설 업무를 돕는 등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룹홈에 돌아가서는 학생들과 삶을 나누었고 성경공부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팀이 학생들과 맺은 관계를 통해 다양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영어통일캠프(EUC)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UC에서 워크숍 리더, 스몰그룹 리더로 섬기며 일주일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고, 눈물 섞인 기도 끝에 몇몇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팀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작별 인사를 해야 했을 때 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여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느헤미야팀을 지도한 것은 저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선교의 동역자로 섬기면서 하늘꿈학교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사역과 통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여름, 6명의 느헤미야팀 구성원들의 희생을 통해 하늘꿈학교의 여러 학생의 삶이 변화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늘꿈학교 느헤미야팀
담당 교사 김인애

느헤미야팀을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처음 미국에서 6명의 대학생 소녀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들을 맞이해야 할지, 52일간의 긴 일정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감정이 상할까 봐 염려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머무는 기간 동안 빌려준 핸드폰이 분실되고, 은행 환전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기쁨으로 서로 협력하며 배려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동역자로서 관계를 더욱 끈끈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제가 느헤미야팀에게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학교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표정과 말, 태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 그 사랑을 전하러 멀리 한국 땅까지 온 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채플 시간 간증을 통해 편안하게만 자랐을 것 같은 느헤미야팀 멤버들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상처 많은 우리 아이들도 느헤미야팀과 같이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언젠가 변화되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또한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지만 느헤미야팀과 함께 하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기쁨을 함께 누렸을 거라 확신합니다.
느헤미야팀과 함께 한 지난 두 달을 떠올리면 여전히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지만 Sarah, Cortney, Shelbi, Madison, Grace, Gracie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회복을 위해 여전히 함께 중보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루어나가실 일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하늘꿈소식

Ⅰ.신앙 PART

하늘꿈학교 교육의 기초

통일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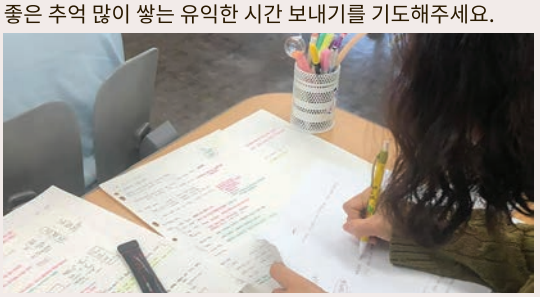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는 북한 회복을 위한 통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지난 5월, 6월 기도회에서는 유혜란 목사님(북한체제트라우마 치유 상담센터 대표)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실제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아픔과 소망의 마음을 전해주셨고 중보자들이 함께 모여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자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Ⅱ. 지성 PART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노력

기말고사

하늘꿈학교는 기말고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로써 2019학년 1학기의 중요한 일정은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기특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지는 멋진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방학 기간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고 좋은 추억 많이 쌓는 유익한 시간 보내기를 기도해주세요.



법원견학

하늘꿈학교는 법무법인 광장의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법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수령님 말씀이 있다는 북한과는 다르게 법으로 국가를 다스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나 개인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법치를 설명하기 위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하늘꿈학교 학생들은 법원 견학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실상을 재확인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했습니다.

Ⅲ. 인성 및 건강 PART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케스트라 집중수업

하늘꿈학교 전교생은 1인 1악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전혀 악기를 배울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악보를 읽고 연주 할 수 있는 실력으로 교육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악으로 새로운 취미가 생기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점 때문에 하늘꿈학교는 오케스트라 수업을 포기하기 않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자 오케스트라 집중수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합주시간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퍼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Ⅳ. 남북통합 PART

사람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현장

영어통일캠프(EUC)

월 22일~26일 청호인재개발원에서 300여 명의 남북 청소년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스텝들이 모여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한 청소년들과 외국에서 온 스텝들은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실상을 하늘꿈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들으면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독일연방의회 의원단 방문

독일연방의회 의원단이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Christian Lindner (크리스티안 린드너/ 자유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외 여러 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크리스티안 대표님도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지신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친구의 나라인 한국에 오셔서 첫 일정으로 하늘꿈학교를 찾아왔다는 대표님. 학생들의 아픔을 공감해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 진학, 취업 PART

내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고3학생 대입 준비

지금은 방학이지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3 학생들 입니다. 2020년 대입 원서 접수가 한창인 요즘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기 위해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옵니다. 아직 한국 사회를 다 알지도 못했는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하늘꿈 고3 학생들이 후회하지 않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2019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늘꿈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
중학교 · 고등학교입니다.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인 하늘꿈학교는
14~25세의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하늘꿈학교는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과교육 및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므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만 입학 가능합니다.

입학절차

▷ 기도해주세요

1. 모든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실과 정직한 태도로 학업에 임하여 더 나은 성장이 있는 2학기가 되게 하소서.

2. 고3학생들이 입시가운데 있는데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합당한 진로로 진학을 준비하고 결실을 맺게 하소서.

후원자명단

<5, 6, 7월>

<개인후원>

강건 강경인 강금봉아 강대용 강문호 김은애 강선영 강수진 강윤모 강은산 강은주 강지원 강진홍 강진희 강홍재 고남숙 고선옥 고애순 고영진 고원복 고준호 고차원 고한승 고연희 고현희 곽영민 곽원섭 곽태예 곽희령 구경희 구병삼 구주와 구효민 권대영 권문연 권삼영 권세영 권영미 권익환 권진희 길종두 김강 김강석 김건철 김경곤 김경미 김경욱 김경이 김경준 김경하 김경헌 김경환 김경희 김계자 김고운 김교식 김규미 김근희 김금송 김기태 김누리 김다인 김대열 김덕수 김동섭 김동현 김목화 김묘선 김무수 김미경 김미나 김미선 김미자 김민정 김민현 김 별 김보경 김보연 김사희 김상학 김상현 김상활 김서연 김선중 김선희 김성균 김성미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세정 김수정 김순복 김순애 김순정 김승범 김신애 김아영 김여환 김연중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채 김영한 김영희 김예은 김옥자 김용미 김유라 김유리 김은경 김은덕 김은란 김은희 김인숙 김인애 김인의 김일희 김정미 김정순 김정진 김정태 김정한 김정호 김정희 김종익 김종훈 김주민 김주애 김주연 김주희 김준희 김지근 김지수 김창석 김창숙 김창진 김춘미 김충태 김필수 김필준 김하림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형애 김형준 김혜인 김화영 김효은 김훈성 김흥순 김희연 나욱 나현정 남금행 남기석 권진희 남정희 노금자 노상균 노재열 도혜미 라승남 라주영 류극희 명지욱 문수정 문윤태 문채은 문초비 문형석 민경해 박경희 박근양 박기완 박나래 박난희 박동소 박동찬 박미숙 박민주 박민호 박범도 박선여 박성배 박성산 박성은 박성희 정일환 정주영 박세종 박세호 박수경 박수영 박승미 박신영 박양준 박옥순 박은숙 박은영 박인숙 박정희 박종영 박주향 박지영 박찬미 박찬수 박창수 박천희 박하리 박현선 박형준 박혜경 박혜영 박호준 방효은 배경자 배선애 배연옥 배재범 배정인 백기범 변창수 봉세창 서동민 서신덕 서영옥 서원희 서은광 서정숙 서창오 성재우 손경연 손영환 손유진 손정원 손주효 손혜경 송경원 송금상 송미화 송영훈 송은주 송준욱 송현석 송현혜 유성혁 신기루 신미령 신민우 신석봉 신성순 신수지 신숙희 신승일 신윤미 신재경 신현주 신현호 심경희 심보라 심우정 심재녀 심혁식 안상미 안성숙 안연회 안진규 안진화 양영준 양유성 양윤석 엄성호 여인묵 연윤주 염선아 오민택 오상윤 오용택 오유경 오은수 오정혜 오찬석 오화봉 옥승란 우갑덕 우선숙 우현정 원두연 원용선 원희석 위정현 유권식 유성은 유용만 유아름 유의동 유종빈 유지희 유현숙 윤광무 박혜경 윤동일 윤미선 윤삼희 윤융한 윤주환 이경렬 이경옥 이경임 이경희 이규정 이기승 이낙영 이능경 이동진 이두완 박미란 이명현 이문기 이문종 이문희 이미지 이민근 이민옥 이병일 이부길 이상미 이선아 이선희 이성옥 이성우 이성후 이순구 이슬기 이승아 이영란 이예은 이완준 이원미 이원순 이유정 이윤정 이은선 이은정 이은주 이인화 이장로 이재경 이재동 이재영 이정수 이정원 이정은 이정임 이정현 이정희 이존필 이종경 이종원 이종호 이주연 이지애 이지은 이진규 이진숙 이철룡 이철웅 이충석 성명아 이충옥 이태만 이학승 양영숙 이한나 이현숙 이현순 이현승 이혜숙 이혜영 이효순 이후남 이훈희 이희라 이희영 이희천 인지연 임경아 임다솔 임석원 임여진 임영숙 임유라 임윤아 임 은 임은주 임재경 임향자 임현주 임형묵 임혜정 장경숙 장귀옥 장동현 장 미 장새미 장수현 장한나 전계화 전성이 전수정 전효진 정경란 정길아 정동련 정동수 정미선 정미순 정미희 정민호 정병윤 정성운 정시영 정연앙 정요한 정웅섭 정유진 정윤경 정재우 정재한 정재훈 정주영 정지영 정진곤 정진수 정창우 정행자 정혁준 정현강 정희경 제갈민정 조명희 조반음 조상준 조성라 부성범 조성민 조연행 조영광 조영란 조오채 조윤경 조정희 조진희 조찬영 조 한 조 혁 조혜련 조혜숙 조혜원 조희준 주미령 주민선 주우진 주의숙 주혜정 진미현 진희주 차은경 차홍선 채경령 최대환 최민수 최민호 최선미 최성엽 최성이 한재희 최성일 최수은 최숙희 최안나 최영나 최영순 최옥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실 최은주 최익진 최인섭 최지연 최진영 최태웅 최형숙 최홍준 탁은정 탁지혜 태원우 편석범 하유진 하은희 하진희 하창직 하 한 서승희 하혜숙 한규화 한상열 한영림 한인란 한정희 한진용 한춘자 한현진 함채연 허숙자 허순영 허안자 허영미 현상민 홍가은 홍서연 홍요섭 홍원표 홍은경 홍은주 홍지선 홍현수 홍혜진 황광옥 황록경 황민선 황인자 황정희 익명

<단체후원>

(주) 제이앤비컨설팅, (주)니코글로벌, (주)호텔롯데롯데월드, ㈜아비코전자, ㈜인터케어, 농업회사법인 (주) 다비육종, 글로벌엘림미션, 더프레임종합건설, 광성씨알티, 삼성생명보험(주), 성남중원경찰서, 성덕사회복지센터, 서울대학교 AIP, 서울아산병원진단의학과, 일가재단, 100주년기념교회, 가락동부교회, 갈보리교회, 강서침례교회, 광성교회청나비선교회, 권선제일교회, 기쁜교회, 남산감리교회,
남산교회 바울선교회, 내동교회, 내수동교회, 능곡제일교회, 대원교회, 돈암감리교회, 동광교회, 동숭교회, 드림교회, 룻선교회, 미아중앙교회, 북아현성결교회,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사랑하는교회, 삼성교회, 상계광림교회, 새길교회 총여성교회, 새빛전원교회, 서문교회, 선단화목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 4속회,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선한목자젊은이교회, 성남제일감리교회, 세신교회, 시흥하늘꿈교회, 신촌감리교회, 신촌장로교회, 아둘람선교회, 여주중앙감리교회23지회, 영통교회, 예수님의사람들교회, 옥토교회, 온누리교회 무릎기도회, 우리들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산성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_장학, 주님사랑교회, 중곡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통일선교팀, 진남제일교회, 참빛교회, 창일교회, 탑동교회, 포트웨인제일장로교회, 하늘가족교회, 한나회, 한빛교회, 할렐루야교회 북한선교국, 함께지어가는교회, 행복나무교회, 혜성교회

<물품후원>

서문교회, 온누리교회무릎기도회, 더프레임, 고메베이글, 다비육종, 삼성생명, 크리스티나, 성남 검찰청 법사랑,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정신여중2학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전진휘, 최숙희, 문연순, 대한에프에스, 전주 팔복교회, 전주 기전대학, 조대현, 마도윤, 법사랑,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승규, 김선화, 정동제일교회, 포도나무교회, 올피플,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산성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마원종합사회복지관

하늘꿈학교에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름은 싣지 못했지만, 학습 봉사, 주방 봉사 등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위 후원자 명단은 후원금 계좌에 입력된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후원 관련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하늘꿈학교로 연락 주시면 우편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 (사)좋은씨앗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꿈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방법>

1. 하늘꿈 프렌즈(자원봉사자)

주방 봉사, 1:1 과외 지도, 행정 봉사 등 (하늘꿈학교 홈페이지 www.hdschool.org 에서 신청. 요청 시 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2. 후원

정기 후원(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물품 후원(식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기념일 후원 등

후원계좌_ 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 좋은씨앗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

연락처 | 02)407-9620 | www.hdschool.org

사단법인 좋은씨앗

하늘꿈학교

HEAVENLY DREAM SCHOOL